

죽음 앞에서도 생산만 강행하는 만도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故) 김승모 님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사고 직후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 실무일치안조차 뒤집었다. 오직 관심은 멈춘 라인을 하루빨리 돌리는 것뿐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뒷전으로 미룬 채, 회사는 인터락 공사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새벽 4시, 노동조합의 눈을 피해 몰래 중간관리자를 들여보내 생산을 재개하려 했다. 이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회사의 진짜 얼굴이었다. 노동조합은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조합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밤을 지새웠다. 회사가 지키지 않은 최소한의 도리를, 만도지부와 평택지회가 몸으로 지켰다.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하나의 심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어떤 합의도 없이 평택 공장의 물량을 하청업체인 제이디테크, 제이디오토모티브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긴급 산보위를 파행으로 몰아 시간을 벌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뒷전이었던 것이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얼마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제2의 만도를 만들고 있었다.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것도 모자라, 조합원의 일자리마저 은밀히 빼돌리고 있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산보위를 정상 개최하여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나서고, 불법외주화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생산이 먼저일 수 없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고 김승모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와 흔들림 없는 고용안정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